조계종 破僧 원인 '소유·선거·문중·계파'

조기룡 교수, 불교학연구회 하계 워크숍서 주장

근현대를 거쳐 오며, 조계종은 많은 발전을 이뤄왔지만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는 총무원장 선거부터 스님들의 청규 문제까지 다양하고, 이는 승단의 파열음을 가져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이 경제적 불평등과 선거제도, 문중 중심 문화, 정치 계파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사진〉는 6월 30일 양산 통도사 문수법당에서 '불교교단의 화합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불교학연구회 여름워크숍서 이 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한국불교의 미래와 승가의 화합' 주제 논문에서 근현대 이후 한국불교는 종권을 둘러싼 갈등과 분규를 보였으며, 이를 '파승(破僧)'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경제적 불평등 △선거제도 △문중 중심 문화 △정치 계파(종책모임)을 파승의 원인으로 꼽았다.

"경제적 불평등으로 현재 승가는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분석한 조 교수는 본래 옷과 음식 등 나눌 수 있는 물건은 현전승가(現前僧家)의 소유가 돼 분배되고, 토지와 정사와 같이 나눌 수 없는 물건은 사방승가(四方僧家)의 소유가 됐음을 되짚었다.

이에 조 교수는 "이 같은 승가의 소유 원칙이 현재 한국불교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며 "시주물은 욕망과 집착의 대상이 됐고, 평등해야 하는 승가에서는 불평등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불평등이 승가 내부 의식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면, 선거와 문중·계파는 종권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갈등의 요인이라는 것이다.

조계종은 현재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민주화'를 근거로 선거제를 도입했다. 선거제는 조계종의 수장인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등에 적용된다. 행정과 입법의 대표자를 모두 선거로 뽑고 있다. 조 교수는 "선거로 인한 갈등과 분열의 원인은 다수결의 원칙에 있다. 신속한 의사결정은 가능하지만 소수 의견이 배제된다"고 파승의 원인을 분석했다.

'문중 중심 문화'와 '정치 계파' 문제는 선거를 기반해 구성된 종단 기구에 '문중·계파 안배'의 인사를 진행하는 데서 기인된다. 조 교수는 "계파와 문중은 모두 선거를 매개로 한 승가 갈등과 분열의 주역"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계파와 문중 간 연대를 통해 종권을 창출하고 승자가 그 세속적 성과물을 점유하는 조계종의 정치 체계는 승가를 파승으로 이끄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승가도 '빈익빈 부익부' 존재
승자 독식 선거제 불화 양산
문중·계파, 종권 생산 기제로
종권 분산, 선거 등 폐해 해법
'一佛弟子' 승단 구조 고민해야

그렇다면, 파승이 아닌 화합 승가로 나아가는 방안은 무엇일까. 조 교수는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일분(一分)'의 승가 의식 변화와 종단 권력의 분산, '일불제자(一佛弟子)' 승단 구조 확립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정부가 법령을 아무리 제정해도 범죄행위는 근절되지 않듯이 종법을 아무리 철저히 제정해도 범계행위의 근본적 해소는 되지 않는다"며 "스님 스스로 물질에 대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한, 완벽한 분배도 소유물에 대한 방하착도 어려운 일이다. 스님 스스로 자기 몫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권 분산에 대해서는 총무원장, 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의 이권을 없애고 추대를 통해 인재를 등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현재 직선제냐 간선제냐와 같은 선거 제도의 선택은 근본 해결 방안이 아니다. 문제는 이들 승직에 집중된 권력의 분산"이라며 "권력 분산의 궁극점은 신도에게도 종단 운영관리에 대한 주요 권한을 부여하는 출재가 상호간 협조적·견제적 시스템 구축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자랑 동국대 교수는 '화합이란 무엇인가'를, 통도사율학승가대학원장 덕문 스님은 '교단의 화합 실현에 있어 지도자의 역할' 등이 발표됐다.

덕문 스님은 "교단의 화합 실현을 위해서 지도자는 여러 가지 갈마를 원활하고 여법하게 진행 할 수 있어야 한다. 지도자 역량을 갖춘 스님은 계율에 밝은 스님이란 의미"라며 "한국불교의 현실은 계율 관련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며 시스템 운영에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신성민·하성미 기자

자승 스님 임기 8년, 시민들이 功過 기록

구글시트로 누구나 기술… "불교계 성찰"

불교시민사회계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임기 8년 공과(功過) 기록에 나선다. 다만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서의 작업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해 특정 사건에 대한 가치판단 서술이 얼마큼 객관적으로 이뤄지느냐가 성공 열쇠일 것으로 보인다.

'자승 종권 8년 백서 편집위원회'는 7월 5일 서울 인사동 관훈갤러리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계종 자백(자승종권 8년 백서)〉 발간 계획과 동참자 모집에 대해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김경호 지지협동조합 이사장, 임지연 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 김영국 연경불교정책연구소장 등 그동안 조계종단 집행부에 여러 문제제기를 해온 불교시민사회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임지연 상임대표는 "더 청정한 승단을 만들고, 어떤 지도자가 선출돼야 하는지 알리는 희망의 표현이 백서 제작으로 이어졌다"고 백서 발간 취지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백서 내용은 인터넷 이용자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구글스프레드시트로 정리한다. 지난해 말 정치 스타트업 '와글'이 구글시트를 통해 시민들과 만든 '박근혜 퀸메이커 인명사전'을 참고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형식을 차용한 구글시트는 글은 물론 각종 기사 및 동영상 링크 등을 기술할 수 있다. 백서는 △일시 △사건명 △주요 관련자와 당시 직책 △경과일지 △쟁점사항 △결과와 영향 △주요 언론보도 등으로 분류했다.

사업을 제안한 김경호 이사장은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더욱 구체적인 백서가 만들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10월 총무원장 선거 전에 서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가치판단은 개개인마다 다르므로 부정적 서술과 배치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김 이사장은 "충분히 타당성 있다면 병기할 생각이다. 다만 열린 공간이기에 자신과 다른 견해를 삭제하거나 왜곡하지 않길 바란다"고 답했다. 010-5381-3309(김경호 지지협동조합 이사장)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수행도량 뒤편에 불법 펜션 단지가?

총지종 괴산 중원사 인근 부지 용도변경 논란 확산

충북 괴산의 한 사찰 인근에 불법 펜션택지가 조성된 데 이어 이를 감독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진입로를 개설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인선)은 최근 "종단 수행도량인 중원사 인근 토지가 불법적으로 택지개발됐다"고 주장했다.

총지종이 주장하는 불법택지는 중원사 뒤편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9-14번지와 18번지로, 2년간 관개공사 및 축대조성사업이 진행됐다. 총지종은 농지의 경우 군청의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지만 인허가 없이 개발됐다고 주장했다.

괴산군청 농업정책실 농업정책팀 담당자는 "이평리 359-14번지와 18번지에서의 택지 조성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없었다. 현재 골재 야적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황"이라고 밝혔다.



총지종 중원사 인근 불법으로 조성된 택지 전경. 사진에 표시된 부분이 중원사다.

문제는 원상복구 명령이 골재 야적에 한정된 것이란 점이다. 해당 부처는 관개공사 및 축대조성이 되더라도 이 택지에 일부 경작이 이뤄지고 있음을 들어 택지조성 원상복구 명령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인근지역에서는 이 택지에 펜션단지가 조성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하수도 공사 등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총지종 측은 "지주가 택지를 개발한 후 시설을 지으면 결국 군에서 민원을 우려,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괴산군청이 예산을 들여 불법택지 접근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한 사실도 함께 드러나며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 불법택지의 진입로 역할을 하는 농로가 개설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예산이 증액됐을 뿐만 아니라 불법 개발 사실이 드러나고서도 도로개설 부처가 토지관련 부처가 아닌 점을 들어 이를 방치한 것이다. 괴산군청 안전건설과는 2016년 5월 이 불법토지까지 2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농로 공사를 추진했으며, 3개월 후인 2016년 8월 같은 구간에 대한 민원을 명목으로 예산을 4500만원까지 늘려 총 300미터까지 농로를 확장했다.

총지종 측은 "농로 명목이지만 사실상 불법 조성된 택지 조성지로의 진입로"라며 "농로 개설을 위한 현장조사에서 이미 하수도 관개공사 등 불법적인 개발현황을 파악했지만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 하에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중원사 관리인 윤한희 각자는 "현재 택지 조성지는 사찰 진입로를 통해 갈 수밖에 없다"며 "위락시설이 들어서면 수행환경이 침해받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군이 의혹을 해소하고 원상복구를 지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불타고 있는 줌머인들의 가옥. 사진제공=재한줌머인연대

"소수민족 줌머인에 폭력 중단하라"

마하이주민협, 6월 30일 성명 발표

전 세계적으로 종교갈등 사건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지대에서 불교도 소수민족 줌머인들에 대한 방화 및 폭력 행위가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한국불교계에서도 줌머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중단 및 인권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재한줌머인연대는 7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줌머인 탄압행위에 대한 국제사회 및 한국불교계의 관심을 호소했다.

이들은 "방글라데시 군과 무슬림들은 2명의 줌머인들이 나욘(피해 무슬림)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씌웠지만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는 단지 군과 경찰의 비호 아래 무슬림들이 저지른 집단 공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한줌머인연대는 국제사회와 한국불교계에 대해 피해 줌머인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호소하는 한편, △방글라데시 총리에 공식 항의 서한 전송 △줌머인들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 현지 조사 등을 요청했다.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도 6월 30일 "종교와 민족이 다르다는 것은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폭력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치타공 산악지대의 폭력행위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표명했다.

이어 방글라데시 정부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명확한 피해 방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박아름 기자

불기2561
단기4350년
만사형통 기원을 바란다면
기(氣)에너지가 넘쳐야 만사형통이 찾아옵니다!

옴 마니 반메 훔 호신불 달마시계

옴은 가난과 윤회의 고난에서 벗어나 안정의 상태를 가진다. 마니는 보석을 의미한다. 반메는 연꽃 지혜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이 옴마니반메훔은 지혜와 방편이다. 연꽃 속의 보석이다.

부처님의 대비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일어난다.
이 시계를 착용한 자는 모든 팔난이 소멸될 것이다.

부처님의 의미는, 첫째는 지대한 관심과 둘째는 확신과 의욕이며 셋째는 성취의 깨달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 부처님과 합일되면 자신과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인다. 옴 마니 반메 훔은 하늘과 인간 축생 아귀 모든 지옥문을 닫는다.

기(氣) 심령연구가 정음스님
www.kgf21.kr



2017년 정유년을 맞아
불자님들께 성불하시라고
특별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제조사 : 오리엔트)

- IPG 24K공법으로 완성된 케이스
- 세미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
- 최상의 금도금 24각 커팅 베젤 스타일
- 최고급 사각보석 12개 문자판에 식입
- 최고급 JAPAN 무브먼트
- 3기압방수, 3ATM
- 최고급 보석 용두
- 문자판 내부에 부처님상 양각화
- 스테인레스 스틸 메탈밴드

낱개당 판매가 138,000원
남녀세트 판매가 238,000원
(접수 불자님 축원기도 해 드립니다)



시계 점안식

호신불 달마 시계는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사업번창을 원하시는 분
- 가정에 평안을 발원하시는 분
- 육신에 병고가 찾아와 기운이 없으신 분
- 마음이 어지러워 꿈자리가 뒤숭숭 하신 분
- 수험생 자녀가 계신 분

사단법인 한국불교 전통문화 포교회
등록번호 : 017-05-01
추천 :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문화관광부 법인설립허가 제 6 호

상담문의 1588-4164
입금계좌 (농협) 351-0949-7000-63 예금주: 불교조계종관음사